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Vol. 02

희 망 과 꿈 을 찾 아 주 는 나 눔

stx 작은도서관

S T X with S m a l l L i b r a r y 2 0 0 8



창의와 도전
Dream & Future
World Best

꿈을 찾아서 세계로

STX가 대한민국 조선 업계의 꿈인 크루즈선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1위 크루즈선 건조사 '아커 야즈' 인수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그룹으로 도약한 STX.
지구촌 곳곳 6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양대국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stx

stx Corporation

stx Pan Ocean

stx 조선

stx 엔진

stx 중공업

stx 엔파크

stx 에너지

stx 건설

Contents STX with Small Library



04 Intro

발간축사 국립중앙도서관장, MBC 사장

함께 하는 기업 STX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희망 나눔기업 MBC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

15 Part 01 고맙습니다 STX 작은도서관 현장을 가다

16 경남 창원 창원의 명소, 소개 작은도서관에 한번 놀러 오이소!

22 경남 진해 글과 함께 벗하여 날아오르다!

28 경남 마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토록 책과 즐기는 공간으로!

35 Part 02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보다

36 작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40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공공이 끌고 기업이 밀어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땀 흘린다!

44 언론으로 보는 '작은도서관'

46 Zoom In STX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꿈의 영토를 개척하는 기업

Vol 02 STX with Small Library 2008

발행일 2008년 7월 30일 (Vol 02) |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문화방송, STX

디자인 IDEASPOON(02-2277-6206) | 사진 윤기석 | 편집장 정양순 | 리라이팅 박은몽 | 출력 DITEK

ISBN 978-89-7383-283-5 04020

ISBN 978-89-7383-281-1 (세트)

기업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첫 번째 결실로 STX가 후원한 전국 3개 소의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고 이에 관한 화보와 이야기를 엮은 「STX 작은도서관」이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마을 인근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와 호흡을 같이하는 곳이자, 책을 매개로 도서관 본래의 가치가 함께 공유되는 생활속의 문화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은 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으로 어린이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 운동으로 이어져 왔으며,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은 이러한 민간후원활동을 보다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해 전국 3,560여 개 읍·면·동 단위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기관, 그리고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통해 선진문화 국가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주)문화방송과 STX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7.

국립중앙도서관장

생각





자연 · 인간 · 정보가 함께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문화공간으로 탄생합니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지고, 디지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초구 반포4동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지하5층, 지상3층(연면적 38,014㎡) 규모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자연, 인간, 정보가 함께하는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기존 본관을 존중하는 열린 배치와 녹색 카펫을 펼쳐 놓은 듯한 조경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건물을 건립 중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에서는 디지털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 콘텐츠를 생산·편집할 수 있는 전문장비 및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며,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정보의 허브(Hub)가 될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공정률은 72.44%이며, 2009년 개관할 예정이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더욱 많아지기를.....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으로 뜻 있는 기업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TX가 지원한 작은도서관 사례집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캠페인의 공동 주최사인 MBC로서는 함께 노력한 결실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캠페인 파트너와 후원기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문화소의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새삼스럽게 방송과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개관식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한 마당 축제의 분위기가 이 책자의 사진마다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 MBC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뿌린 씨앗에서 돌아난 이 희망의 싹들이 건강하게 자라 무성한 녹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친근하고 유익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더욱 많아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 애쓰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8. 7.

MBC 대표이사 사장 **엄기영**



MBC 사회공헌센터는 온누리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편성본부에
사회공헌센터를 두고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01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문화소의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업
- 02 'MBC 사회봉사대상' _ 우리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포상
- 03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_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캠프
- 04 'MBC 명사들의 사랑나눔' _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애장품 기증 등 나눔 한마당 행사
- 05 '급여 우수리 나눔운동' _ MBC 임직원의 급여우수리를 모아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 06 '청소년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_ MBC 기자, PD, 아나운서 등이 불우청소년 대상 강의봉사
- 07 'MBC 꿈나무 축구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_ 유소년 대상의 전국 '꿈나무 축구리그' 개최 등
- 08 각종 성금모금 및 기부금 집행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새로 지은 집을 보더니 수영이는 탄성을 지르며 신이 나서 여기 저기 집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집을 돌아보며 새 보금자리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꿈처럼 기대에 부풀었다. 다 썩어가는 지붕과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흙벽 등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하던 낡은 집이 튼튼하고 편리한 현대식 주택으로 바뀌어 있었다. 척추장애로 앉아서 집안일을 보는 할머니를 배려하여 모든 집기가 낮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 더욱 마음이 훈훈해졌다.

“얼마 전만 해도 지붕이 썩고 흙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집이었는데..”

어린 손자와 함께 어렵게 살아오던 최 모(95) 할아버지와 척추장애 5급인 김 모(73) 할머니는 새롭게 단장한 집을 선물 받고서는 끝내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

이렇게 STX그룹의 STX복지재단(이사장 강덕수 그룹 회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짓는 ‘나눔의 집’이 전국에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STX복지재단이 가는 곳마다 낡고 쓰러져 가던 집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편리한 현대식 집이 들어서면서, 좋지 못한 거주환경으로 찌들어 가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등불이 켜지고 있다



STX복지재단은 특히 2007년부터 전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집짓기'와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낡은 주거를 새롭게 단장해 줄 뿐만 아니라 도배 및 장판 교체는 물론 지붕 수리와 화장실 개·보수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깨끗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름살이 퍼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합니다

세계 순위 12위로 부상한 STX그룹(주)STX, STX팬오션,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STX엔파코, STX에너지, STX건설 등 8개 계열사로 이뤄진 글로벌 기업은 부쩍 높아진 그룹 위상에 걸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그동안 펼쳐온 사회복지, 장학사업, 자원봉사, 농촌 돕기,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STX복지재단은 특히 2007년부터 전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의 집짓기'와 '집수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낡은 주거를 새롭게 단장해 줄 뿐만 아니라 집수리 분야에서는 도배 및 장판 교체는 물론 지붕 수리와 화장실 개·보수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깨끗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름살이 퍼지고 있다.

나눔의 집짓기 및 집수리 외에도 복지재단에서는 중증산재환자의 재활은 물론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재해 근로자 복지 지원 및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STX장학재단에서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라는 이념을 가지고 국내 학생 및 해외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STX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2007년 강덕수 회장의 개인 사재 60억 원을 기부 받음으로써 국내 대표 재단으로서의 기반을 갖추면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단의 관계자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이렇게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 태안반도 기름유출 방제활동

- 01 희망이 쑥쑥 자라는 '나눔의 집'
- 02 태중대에 올라 퍼지는 우리의 소리, '자연사랑 STX포스'
- 03 STX 가족봉사단의 정기봉사활동
- 04 훈훈한 인정이 자라나는 '집수리 프로젝트'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발로 뛰는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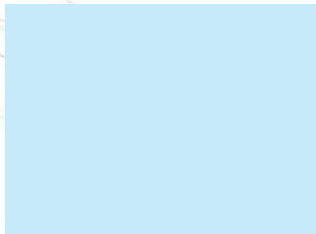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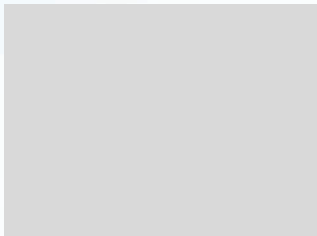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이 사회공헌 활동을 전면에서 끌고 있다면 'STX가족봉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흘린다. 계열사 임직원 부인과 여직원들로 구성된 'STX가족봉사단'은 소외된 이웃과 시설을 찾아가 봉사도 하고 끈끈한 정도 나누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소중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STX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빛나는 대목은 경영진과 관련자는 물론이고 계열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참여하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로 뛰는 봉사를 실천한다.

“그룹의 외형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갑시다!”

STX그룹은 놀라운 회사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사회공헌 활동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2008년 사회공헌 전담팀의 발족이 탄력을 불었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는 물론 STX그룹의 전 임직원들이 함께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부방 어린이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봉사 →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STX의 작은도서관 지원



STX그룹은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연장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에 합류했다. 국내 3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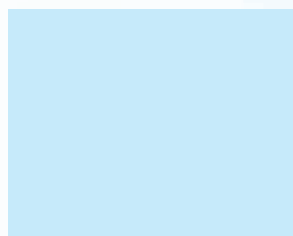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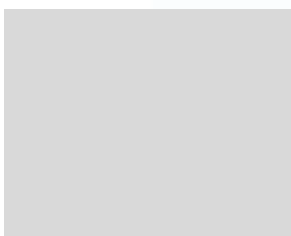
3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STX그룹은 해당지역에 있는 계열사 직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천한 작은도서관 후보지들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후원할 도서관을 직접 결정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했다. 해당지역 사람들과 후원 기업이 한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3곳을 새로이 탄생 시킨 것이다.

그 첫 번째 성과로 2008년 5월 16일, 경남 창원시의 '고맙습니다 소계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다.

또한 STX그룹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지역 작은도서관과 해당 계열사 간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책 모으기 캠페인을 펼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모아 작은도서관에 전달하고, 계열사인 STX조선·STX엔진·STX중공업 등의 자원봉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간다.

STX그룹과 함께 작은도서관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된다.

01 2007 STX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02 'STX와 함께하는 아름다운가게' 창원 중앙점 개점식 03 'STX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에 참석한 STX Soul 프로그래밍단 04 사랑의 연탄 나눔으로 전하는 따뜻한 사랑 05 1사 1학교 합동 자매결연식 06 공부방 아동과 함께하는 목욕봉사 현장 07 추운 겨울도 녹이는 훈훈한 자원봉사활동 08 STX복지재단 나눔의 집짓기 행사 현장 09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 10 아름다운가게 일일 자원봉사 11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 12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 참다래 수확하기 13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현장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업

MBC는 2005년부터 편성본부에 사회공헌팀센터를 두고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처음 제정된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발전적으로 개편·승계한 <사회봉사대상>을 비롯해, 개인주의에 천착하기 쉬운 10대들에게 건강하고 숭고한 봉사정신의 참됨을 느끼게 해준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구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체결한 사회공헌 협약안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명사들의 사랑 나눔>, 개인과 기업의 봉사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사랑의 힘을 방송으로 증폭시킨 <사회공헌 캠페인> 등의 활동은 신선한 반향을 폭넓게 일으켰다.



사회봉사대상

<사회봉사대상>은 1992년 <좋은 한국인 대상>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프로젝트로 올해로 16주년을 맞는다. “이웃에게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소를”이란 슬로건에 걸맞게 사회의 각 분야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격려·치하함으로써, 방송을 통해 사회적 귀감을 삼고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 역할에 부응하고 있다.



1318 사랑의 열매캠프

<1318 사랑의 열매캠프>는 전국을 권역별로 세분화 해, 지역별 추천을 통해 뽑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자원봉사캠프로 이수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증서를 수여해 준다. 해당권역의 대학 기숙사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일정에 따라 봉사시설(봉사지)을 방문, 체험함으로써 이타적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단체생활을 통한 봉사활동을 해봄으로써 자칫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지기 쉬운 10대들에게 남을 돌아보고 헤아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다.



명사들의 사랑 나눔

올해로 3회 짝을 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성격의 프로그램인 <명사들의 사랑 나눔>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진 많은 명사들이 애장품 또는 현금 기부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팔린 애장품들은 전국의 ‘조손가정’(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사는 가정)을 위해 쓰여진다. 이밖에도 ‘타임경매’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아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도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비교적 희박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캠페인>은 “함께하는 작은 나눔, 하나 되어 큰 기쁨”이란 ID송이 대변하듯 함께하는 작은 나눔의 힘을 크게 증폭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1년 반(2006년 5월~ 2007년 11월) 동안 330여 편이 700여 회 방송되었다. 12~13" 형태의 짧은 ID (IDENTIFICATION)성 캠페인으로, 그 동안 방송의 비판기능에서 벗어나 방송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생생하고 다양한 봉사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본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더 나아가 봉사팀을 만드는 등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KORAIL’의 ‘가브리엘의 집 장애우들 남매나들이’를 시작으로 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사회의 희망나무를 함께 키워 나가다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

〈급여우수리 나눔 운동〉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온 프로젝트로, 참가 희망자의 급여에서 천원 단위 끝전을 떼어 축적하는 방식으로 6월 현재 방송사 임직원의 33%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에서 '매칭 그랜트' (MATCHING GRANT)로 기부금액만큼 보태 총 6,400만 원을 모아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MBC 꿈나무 축구재단

〈꿈나무 축구재단〉은 봄부터 가을까지 (4월~9월) e-MATCHING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자유티그로 운영되는데, 대한민국 방송사 중 유일하게 MBC가 축구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630여 개팀, 1만 6천여 선수들이 참가하여 유소년축구 저변확대와 클럽축구 활성화를 통한 미래의 탁월한 태극전사(국가대표)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결선리그에서 잘 싸운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브라질, 영국 등, 선진축구 연수의 특전도 함께 주어진다. 결국, 한국 유소년 축구의 메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인데, 매년 어려운 유소년팀에게 축구용품 전달하고 '소년의 집' 방문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봉사에 일익을 다하고 있다.

또한, MBC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선봉에 섬으로써 전국에 작은도서관이 급속도로 조성되어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어린이부터 사회 고위층의 명사에 이르기까지 봉사의 현장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간다.

꿈을 찾아서 세계로

넓은 세계가 STX에게는 하나의 무대입니다.

세계에서 꿈을 키웁니다.

세계에서 미래를 창조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기업 STX가 월드 베스트 기업을 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구촌 곳곳, 오대양 육대주가 STX에게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stx



Part 1

고맙습니다

STX 작은도서관 현장을

가다

경남 창원 창원의 명소, 소계 작은도서관에 한번 놀러 오이소!

경남 진해 글과 함께 벗어나 날아오르다!

경남 마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토록 책과 즐기는 공간으로!

경남 창원

고급합니다

소계

작은도서관

stx

소
계

창원의 명소, 소계 작은도서관에
한번 놀러 오이소!



- “저기가 어디야? 우리 경남에 저런 곳도 있었어?”

깔끔한 벽화가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 안방처럼 편안한 실내 전경이 펼쳐진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설과 차를 마시는 공간, 그리고 현대식 인테리어와 조명들이 어우러졌다. 지역 방송국에서 소개된 이곳, 텔레비전에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보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어디냐고 문의 전화를 걸어왔던 이 곳은 바로 경남 창원 소개동에 2008년 5월 16일 오픈한 ‘고맙습니다 소개 작은도서관’이다.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은 물론 멀리서도 몰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날로 늘어간다. 소개 작은도서관은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창원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다.

시설학원 따로 갈 필요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소개 작은도서관은 '98년 2월 개관한 '소개사회교육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 재개관한 곳이다. 오래 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하여 새롭게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컸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된 것이다.

-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그동안 불편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깨끗한 실내 화장실로 변했어요.” “냉난방시설이 좋아져서 여름이나 겨울에도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개사회교육센터 때부터 이곳을 이용해 오던 주민들은 너도나도 달라진 시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개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오랜 센터 운영에서부터 체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이제 막 개관한 작은도서관 답지 않게 전문 강사를 초빙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이 웬만한 문화센터 수준을 능가한다. 창작미술, 태생, 수채화, 동화 구연, 주산 활용, 수학 교실, 댄스 스포츠, 글쓰기 교실, 논술 교실, 종이 접기, 찰흙 교실, 과학 교실, 성인 요가 등 유아서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 교실을 마련하여 더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다.

- “창원시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춘 학원은 아마 없을 거예요. 논술부터 미술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애들을 시설학원에 따로 보낼 필요 없겠어요.” “이때까지는 도서관 가려면 마산시까지 나가야 해서 불편했는데 집 가까이에 작은도서관이 생기니 자주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젠 마산시 사람들이 우리 소개 작은도서관으로 온다니깐요.” 문화 소외지역이던 소개동의 작은도서관이 오히려 주변 도시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역 유지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민관이 다 함께 참여

매월 첫째 목요일이면 소계 작은도서관에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정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8명과 실무자 2명이 함께 꾸러 나가는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 이처럼 소계 작은도서관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소계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부터 현재 운영까지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 운영위원들은 리모델링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작은도서관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하여 리모델링 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중심축이 되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지역단체장, 지역 유지들의 관심도 끊이지 않는다. 황은주 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계 지역은 변두리 지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없는 데다 개발이 부족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서 교통이나 문화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소계 작은도서관에서는 ‘영화와 친구하기’라는 영화상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축제, 야외 음악회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 등도 곧 마련하여 좀 더 주민들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또한 창원시 지원금과 회원들의 기증 등을 통해 신간 도서들도 적극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 앞으로 소계 작은도서관이 제2의 빌게이츠를 꿈꾸는 아이들의 공간, 책과 친구하며 서로 정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맙습니다 소개 작은도서관

창원시의 10년 된 낡은 소계사회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함. 오랜 운영 노하우를 통해 15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강점을 자랑함. 문화 소외 지역이라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앞으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소재_ 경남 창원시 소계동 714-8번지(소계민원센터 2층) • 개관_ 2008. 5. 16.

• 규모_ 185㎡ • 시설_ 열람실 및 서가, 프로그램실(3개), 인터넷 프라자 등

• 도서_ 8,900권 • 운영시간_ 월-금 09:30~19:00, 토-일 09:30~17:00, 공휴일 휴관

• 전화_ 055) 297-3452 • 팩스_ 055) 297-3452



경남 창원

고*습*니다

글*벗*나라 작은도서관

stx

글
벗
나라

글과 함께 벗하여 날아 오르다!



- “작년의 담임선생님을 뵈러 왔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없던 도서관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후배들이 부럽네요.”

전년도에 동진여자중학교를 졸업한 여고생 미연은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가 새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을 둘러보고 말했다. 후배들도 즐거워한다.

“언니, 요즘 우리는 글벗나래에 오는 재미로 학교 다녀요.”

‘글벗나래’는 동진여자중학교 내에 새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새 이름이다. 미연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글벗나래는 보통의 학교도서관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한 카페 같은 작은도서관이 되어 버리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은 물론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곳으로 변했다.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시 내에 있는 기적의도서관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탓에 그동안 주민들은 제대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글과 벗하여 날아오르다.”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글벗나래 작은도서관 덕분에 지역주민들 모두 책과 친한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어벽부터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했죠.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가장 조심스러웠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양해 말씀을 각 가정에 드리는 했지만 중간고사 기간에는 오전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치고 개관한 지금 글벗나래 작은도서관에는 늘 사람들이 붐빈다. 우선 동진여중 재학생 17명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도서 대출 및 반납, 장서 분류 및 서가 정리 등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돕고 있으며 도서관 측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0명 정도가 동시에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모둠학습공간이 마련되었어요. 80인치가 넘는 전자칠판도 있어요.”

“분위기가 편하고 인테리어도 현대식이라서 자꾸 오고 싶어요. 주말이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따라서 놀러오곤 해요.”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멀리 기적의 도서관까지 나가야 하니까 그동안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했죠.”

- 처음에는 학생들이 주축이었지만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주민 이용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글벗나래 작은도서관 측에서는 운영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문턱이 낮은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생활 재미 쏠쏠

“인근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들이 모두 어린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글벗나라 작은도서관은 성인 및 청소년 중심의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글벗나라 작은도서관은 동진여자중학교 재학생들을 적극 고려하여 인근 기적의도서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성인 이용자들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쓸 참이다. 특히 재학생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통신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연 2회 이상은 작가나 여러 분야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자 합니다. 특히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에도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시상을 마련할 것입니다.”

글벗나라 작은도서관 측은 격주로 DVD 영화 상영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활성화하여 문화 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달의 책 코너, 주제별 도서 전시, 인기도서 선정 등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책과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책 교환전, 독서 명언 책갈피 만들기, 자신의 글 모음집 만들기 등도 함께 시도하고 있다.

- 문턱이 낮은 도서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글벗나라 작은도서관이 꿈꾸는 모습이다. 대출반납대, 정보검색대, 서가대, 휴식공간, 전자철판 및 모듬학습공간, 신간도서 안내대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담당자들과 학생들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작은도서관을 만든 그 정성 위에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사랑도 함께 쌓여 나갈 것이다.







고맙습니다 글벗나래 작은도서관

동진여자중학교 내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함.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환경이고 공공 도서관과의 거리가 멀어 그동안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많았음. 어린이보다는 청소년과 성인 위주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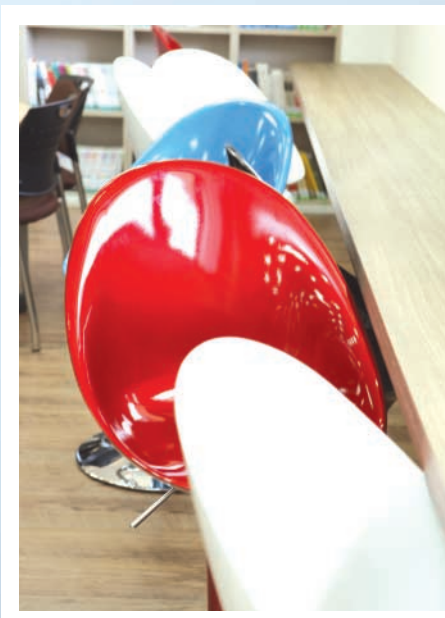
• 소재_ 경남 진해시 덕산길 169 동진여자중학교 본관 2층 • 개관_ 2008. 5. 21.

• 규모_ 135㎡ • 시설_ 열람실, 모둠학습공간, 정보검색대, 휴식공간, 신간도착 안내대 등

• 도서_ 6,753권 • 운영시간_ 평일 10:00~18:00, 토 10:00~13:00, 공휴일 휴관

• 전화_ 055) 551- 4425 • 팩스_ 055)551- 4435





다목적코너

열람석코너

경
남
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평생토록 책과 즐기는 공간으로!



-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경남대학교 캠퍼스 인근의 평생교육관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 학생들이 자료를 찾거나 공부를 하는 전형적인 중앙도서관만 보아 왔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의아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식과 휴식의 공간, 딱딱한 의자 대신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가 보이고 화사한 인테리어 분위기도 전혀 새롭다.

“작은도서관이래.”

“작은도서관?”

- 오고가는 대학생들이나 평생교육관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아직은 작은도서관 개념이 익숙하지는 않다. 그러나 2008년 5월 21일 개관을 하고 나자 하나둘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어린 아이들의 소리도 들린다. 고맙습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과 주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고맙습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경남대학교의 평생교육관 건물 1층에 들어섰다. 원래 연구소로 쓰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것이다. 부근에는 마을의 주민센터와 사회 복지관, 초등학교 등이 있고 주택가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가는 위치다.

● “우리 경남대의 평생교육관은 주택가에 있어서 주민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인근에 학교나 복지관, 관공서 등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없어서 늘 아쉬워 하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옥수봉 과장의 말이다.

●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일반 주민은 물론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근의 대학생까지 이용자층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처음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부터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콘셉트를 잡았다.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점을 배제하고 성인 이용자들도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목적실에서는 빔 프로젝트, 대형 PDP TV 시설을 마련하여 신청을 하면 대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이나 직장인들이 발표 시연 등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독서 상담 코너에서는 가족 또는 모임 단위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지역사회의 한 가운데 위치한 생활의 중심지

“그동안 편하게 독서할 공간이 없었는데 정말 기쁩니다.”

“평생교육관에 다니는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특히 특수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이 생긴 것을 반가워했다.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평생교육관에서 공부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고들 말한다.

현재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2명의 운영 인력이 교대로 사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 개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하루에 40~50명의 이용자들이 찾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단다. STX에서 조성비를 지원하고 경남대학교에서 평생교육관의 한 층 공간과 운영인력을 제공하여 조성된 작은도서관이지만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단순히 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지식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공간, 사회적인 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서관 측에서는 방학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다양한 이용자층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인 내용과 높은 수준의 질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경남대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개념 자체가 없던 지역에 새로 들어섰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나 모두 생소하기만 하다. 그러나 지역의 한 가운데 그것도 관공서, 학교, 복지관 등이 인근에 있는 입지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로 활성화될 잠재성이 크다고 하겠다.



고맙습니다 경남대 작은도서관

경남대학교의 평생교육관 1층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함. 인근에 주택가 및 관공서, 학교 등이 있어서 주민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특히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지역주민과 특수대학원생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소재_ 경남 마산시 대내동 1번지 경남대학교 평생교육관 1층 • 개관_ 2008. 5. 21 • 규모_ 174㎡

• 시설_ 열람실 및 서가, 다목적실, 독서상담코너, 인터넷 및 IT 시설 등 • 도서_ 4,162권 • 운영시간_ 평일 13:00~21:00, 토 13:00~17:00, 공휴일 휴관

• 전화_ (055) 249-1809 • 팩스_ (055) 249-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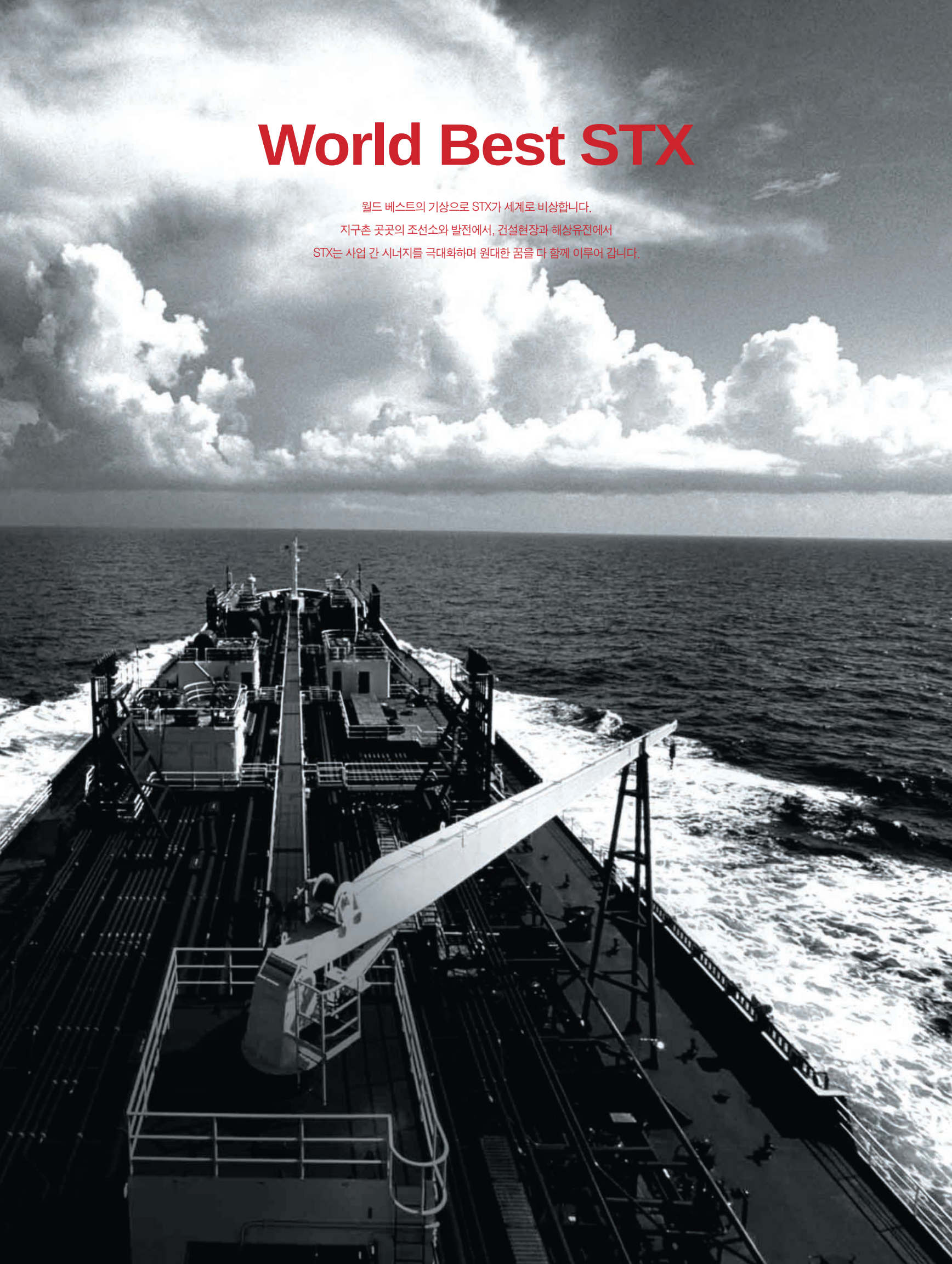


World Best STX

월드 베스트의 기상으로 STX가 세계로 비상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조선소와 발전에서, 건설현장과 해상유전에서

STX는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원대한 꿈을 다 함께 이루어 갑니다.





Part 2

꿈과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온 국민이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보다

마을문고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

범국민 캠페인으로

깃발 꽂다



요즘 여기저기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외치는 소리가 높다. 작은도서관을 지어 주어서 고맙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고맙다... 기타 등등 너도나도 작은도서관이 고맙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원은 바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있다. 한참을 걷고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힘들게 도서관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집 근처에 생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덕분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작은도서관이 뭐길래 우리들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걸까? 또 작은도서관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 가까이 하기엔 먼 공공도서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07년 말 607개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8만 명당 1개관(선진국 미국 3만 명당, 일본 4만8천 명당, 영국 1만2천 명당)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은 예산 확보 등의 곤란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민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이 먼 곳에 있는 문화해택 소외지역을 최우선으로 아파트 단지 내이나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같은 유희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가까운 복합 문화공간’

흔히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상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하여 ‘작은’과 ‘도서관’이란 단어를 붙인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운동인 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와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도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첫째,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도서관이다

대부분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웃집처럼 편안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다.

둘째, 작은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다

다양한 독서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지식정보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독서와 취미활동의 장으로, 주부들에게는 모임공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에게는 쉼터로, 또 주말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오며가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참여의 공간이다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은 수혜자인 동시에 참여자이다. 자원 활동가, 기부자,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 운동, 1960에서 2008까지

❥ 농촌의 마을문고에서 시작되다 현재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 운동인 작은도서관 운동이 정부차원에서 국가정책화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열정과 공공부문의 지원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최초의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에 시작된 임대주택의 농촌 계몽형 도서관 운동인 마을문고 운동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후 1980년대 소외된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민간 도서관 운동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자원활동가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이라는 MBC의 ‘느낌표’ 프로젝트에서 도서관에 대한 국민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로 이 시점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민간 주도 운동에서 국책사업이 되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7년 3월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에만 치중해왔던 사업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이에 발맞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3개년(2006~2008) 동안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집중 시범 조성하여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전국 25개 지역, 2006년도에는 58개 지역, 2007년도에는 전국 72개소(리모델링 64개소, 건립지원 4개소, 상호대차시스템 4개소) 총 155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조성대상 지역은 지자체에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공간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비품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가나(단파, 아보코비) 2개소에 조성하여 작은도서관 운동의 국제화에 기여한 바 있다.

❥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대되다 2006년과 2007년이 ‘작은도서관 시범조성 및 기반구축단계’였다면 2008년부터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작은도서관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변화의 해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의 단발적 국책 사업으로 끝맺기에는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기 조성된 작은도서관(문고)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 및 지자체의 호응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당 1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장기 지속 발전과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8년 작은도서관 조성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작년에 이어 건립 3개소 리모델링은 53개소 총 56개소를 지원 조성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조성을 폭넓게 확산하고자 민간기업 등 독지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과 공동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2007년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결실로 KB국민은행(11억 원)과 STX(3억 원)가 후원기업으로 나서 총 14억 원을 기부하였다



2008을 넘어 미래가치를 바라보다

■ **공공청사의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이사를 갈 경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마을의 커뮤니티도서관이라고 한다. 호주의 경우 주로 시청사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선진국의 도서관 문화가 얼마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2008년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 청사 내 작은도서관을 조성 추진할 계획이다(전라북도 청사, 서울시 금천구 청사, 강원도 강릉시 청사). 이는 공공청사를 주민용 독서공간과 행정자료실을 통합 운영하여 지자체 청사 방문객·민원인·직원의 주민친화적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도 모두 작은도서관** 현재는 마을단위의 지역사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병영도서관, 병원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은 민간후원사업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민간기업과 국민의 후원 및 참여를 확대하여 조성재원 확보, 책보내기, 자원봉사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역 단위의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람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병영·교도소·병원도서관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작은도서관 운동의 법적 기반을 갖춰야**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육성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지 못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하여 연구용역한 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08년 2월 11일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하여 12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원입법 발의(17대) 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자 한다.

■ **기업, 언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이 정부정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이 아닌 범사회적 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작은도서관진흥팀'이 조직된 이후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성과이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이뤄 놓은 것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하겠다. 전국 어디를 가도 주민들의 발길 닿는 곳마다 작은도서관이 있고, 책을 보고 문화를 향유하는 게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작은도서관진흥팀은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세우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공공이 끌고

등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 단위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자 범국민적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2007년 9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60년대 새마을문고 운동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 운동은 2008년 현재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이 작은도서관 보급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민간단체와 기업

기업이 밀어주고

지역주민이 함께 땀 흘린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렇게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동에 참가하는 3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은 2007년 7월 31일(화) 이 운동을 공동주관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민간기업의 후원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주는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 주체인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업전반의 지도·지원을 맡고 있으며, MBC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희망지역 신청 접수 및 기업 후원의 유치와 홍보 운영을 담당하고 UNWTO ST-EP재단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모델을 보급하고 있다. 이 외의 협조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부금의 접수를,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은 국내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을 희망하는 곳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자료를 토대로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현황 조사를 한 후 구체적인 조성지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위_ 국립중앙도서관, MBC, UNWTO ST-EP재단 3개 기관 MOU 협정식

아래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신청 홈페이지
<http://welfare.imbc.com>





1차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 2007. 11. 30



2차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생방송 2008. 5. 6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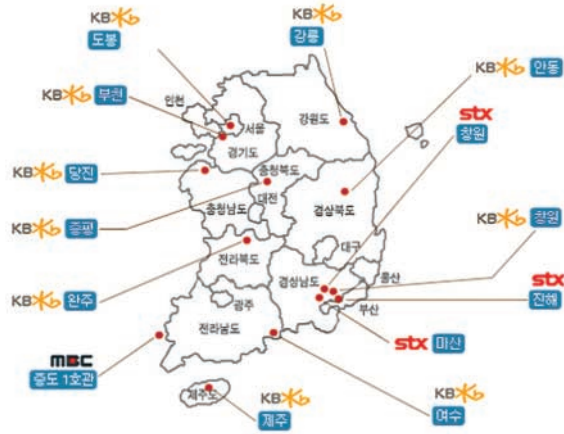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페인은 '07년을 시작으로 '08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07년에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페인을 시작하는 단계로 '07. 11. 30일에 MBC-TV 창사 특집 생방송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방영을 통해 작은도서관과 1사 1작은도서관 운동을 소개하고 전문패널이 출연하여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다.

'08. 5. 6(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2차 생방송을 하였다.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작은도서관의 의미 전달 및 정책방향, 국내·외 작은도서관 현장 소개, 전국 13개소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현장을 스튜디오와 중계차로 이원 중계로 연결하여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유인촌)의 영상 메시지 및 기업후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첫 개관식 현장의 모습을 방영하였으며 전문패널이 참여하여 작은도서관의 의미와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등 작은도서관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의미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니는 특징과 장점,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작_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우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국내 조성 현황



기업이 지원하고 지역 주민이 앞장 섭니다

작은도서관 보급에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이 11억 원, STX(회장 강덕수)가 3억 원을 후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들 기업의 후원으로 전국 10개 시·도에 13개소의 작은도서관이 3개월여 동안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2008년 5월 1일 부천시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 13개소 작은도서관이 개관을 하였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해외 3곳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했다.

KB국민은행과 STX의 후원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KB국민은행 후원 서울(도봉구), 경기(부천시), 강원(강릉시), 충북(중평군), 충남(당진군), 경북(안동시), 경남(창원시), 전북(완주군), 전남(여수시), 제주(제주시) 등 10개 지역, 베트남과 캄보디아 3곳
- STX 후원 경남(창원시), 경남(진해시), 경남(마산시) 등 3개 지역

조성지역 선정은 후원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며, 학교 내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이용을 전제로 지원하게 된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1개소 전용면적(165㎡)을 기준으로 최고 1억 원 정도를 지원하며, 내부공간은 열람공간, 모임공간, 안내공간 등을 포함한 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서가, 도서, 디지털자료, 컴퓨터, 프린터 등 적정소요 물자를 지원한다.

이보다 앞서 국내 첫 번째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시범 조성·개관하였으며,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가나(아보코비, 단파)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Thank You Small Library)」모형을 시범 조성한 바 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 2008년 4월 현재

(총 26개 도서관)



좌_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국외 조성 현황
우_ Thank You Small Library(아프리카 가나)

산골에서도 해외에서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해 나가기 위한 작은도서관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자 기업, 독지가, 일반국민의 후원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KB국민은행과 STX와 같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책이나 운영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호응도 매우 중요하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산골에서도 해외에서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각 계 각 층의 단합된 노력이 우선되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이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각 지자체 담당자 및 운영자 분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을 후원해 준 KB국민은행과 STX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Press Look



웰컴 작은 도서관... 생큐 코리아

조선일보
2008년 2월 5일

"알룰루루루루, 생큐 스몰 라이브러리(고마워요 작은 도서관)."

까만 피부에 하얀 이를 드러낸 아이들은 뜻밖의 선물에 마을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달 31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리데타 섭시티 케벨레 마을에 '산타'가 찾아왔다.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에 앞장선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산하 ST-EP 재단이 '작은도서관'을 선물한 것. ST-EP은 옛 동사무소 건물을 1000권의 책이 가득한 도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엔 '고마워요 작은도서관, 여러분의 세계가 바뀌는 곳(Thank You Small Library Where Your World Changes)'이란 문패가 내걸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인 유순택 여사는 "나도 어렵게 컸지만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도서관의 대형 서가 4개엔 이 나라말인 암하릭어와 공용어인 영어로 된 이야기책들과 한국 전래동화 영문본이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마당에서 벌어진 축하 다과회에서는 한국에서 특별 제작해 선물한 빵튀기 기계가 강냉이를 쏟아내며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STEP은 이곳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인 '코리아 빌리지'의 히브레트 파이레 초등학교 등 모두 8곳에 도서 8000권 등을 기증했고 가나에도 같은 사업을 펼쳤다. '작은 도서관' 유치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관심사가 됐다. 에티오피아 사업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기금을 지원했다. 도영심 ST-EP재단 이사장은 "작은 도서관들을 우리 청소년들의 해외봉사활동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리더십을 기르는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EP재단 에티오피아에서 도서 전달
아디스아바바=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울수리 도서관 개관

일간스포츠
2008년 5월 8일

"김일병, 담배 하나 피고 올테니 내 식판 좀 대신 닦아줘~."

"유병장님, 요즘 같은 민주군대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구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지난 4월 24일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모처럼 맛보는 추억의 '짬밥'이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이 되어서도 군대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다. 확인이 불가능한 옛 무용담 역시 난무한다. 그중 압권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잊혀졌던 무덤을 발견한 이야기. 큰 아들 마의태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신라 마지막 왕의 무덤이 25사단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에서 발견됐다.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있는 신라 왕릉이다. 민통선 지역에 있던 이 왕릉이 군인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너도나도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조연이라고 자랑한다. 회원수 400여명의 이수회(25사단 수색대 출신 모임)가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후배들을 위해 병영도서관 개관에 동참했다.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 김성재 대표, 황규식 전 국방부 차관, 육군 제 25보병사단장과 함께 이수회 회원 17명도 울수리도서관의 힘찬 출발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유청열 이수회 회장은 '비록 도서관 개관에는 큰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도맡아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간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하며 울수리 수색인의 끈끈한 정을 과시했다. 사단법인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가 일간스포츠와 함께 펼치는 병영도서관 국민운동에 각계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과 함께 경기도 양주의 26사단 햇살가득강병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전우회가 동참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의 25사단 울수리도서관이 문을 연 것. 5월에는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18연대와 강원도 인제의 육군 과학화훈련단에 병영도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후원 및 문의 02-465-5417.



꿈과 희망의 고향...
작은도서관
싱가포르에서 영부인을
만나다

월간 작은도서관
2007년 11월 30일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3시 권양숙 여사는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정책과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소수의 취재진과 현지 관련자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치러졌다. URA의 부청장이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다. 첫 번째가 '싱가포르 도시개발의 특징', 두 번째가 '생활밀착형 환경공간'에 대한 브리핑으로서 주로 머린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되었다.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 대한 브리핑은 마지막인 세 번째였는데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Senior Director'인 'Tay Ai Cheng'이 발표를 맡았다. 공식적인 세 가지 브리핑이 있은 후 이어진 질문 답변 순서에서 권 여사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의 운영과 정부 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우선 권 여사가 "싱가포르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의 건물을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자 URA 측은 "커뮤니티 센터에 커뮤니티 라이브러리가 들어서는 경우 60년 정도 장기 임대로 공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은 누가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권 여사가 물자,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던 'Tay Ai Cheng'은 "국립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은 9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URA 측은 특히 싱가포르의 토지개발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토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땅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공간을 집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토지개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네마다 피어나는 꿈 '작은도서관'
기업 후원 첫 사례
'도란도란 도서관'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5월 2일



북사골 부천에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알찬 책들로 가득 찬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일 그동안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민간기업과 독지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펼쳐 온 '작은도서관 캠페인'의 결실로 기업이 후원한 첫 번째 사례인 부천시 '도란도란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독서 및 생활문화공간을 조성,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11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해 155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또 최근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57개소를 지원하겠다는 2008년도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6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 내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 번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행사는 이러한 국비지원과 별도로 기업후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 결과 국민은행이 10억원, (주)STX가 3억원을 기부해 '국민은행 후원 작은도서관'을 부천시 등 10개곳에, (주)STX 후원 작은도서관을 창원시 등 3개곳에 조성할 수 있었다. 기업후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번 부천시의 첫 개관행사를 시작으로 5월중 각 지역별로 개관 행사가 이루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 읍·면·동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해 나가기 위해 기업 독지가 일반국민의 후원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범국민적인 독서·생활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꿈의 영토를 개척하는 기업

STX에게 고객은 제품 수요처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종업원 그리고 국가와 사회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STX는 고객중심 경영 실천을 통하여 고객과 협력자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창의와 도전은 STX의 문화를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꿈을 향한 창의와 미래를 향한 도전은 바로 훌륭한 인재로부터 나옵니다.

STX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제도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월드 베스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기술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근본입니다.

STX는 독자자립기술 확보, 세계일등상품 개발, 핵심기술 역량 집중을 통해

내부 역량을 극대화하여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를 기술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zoom in **STX**

시간을 초월하여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온 ‘World Best 기업’

STX그룹은 해운무역/조선기계/플랜트·건설/에너지의 4개 핵심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STX의 브랜드와 경영이념을 공유하는 8개 주요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다. 지주회사 체계의 투명한 선진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조선 기자재에서 선박엔진 제조, 선박 건조, 플랜트, 해운,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사업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STX그룹은 매출의 90%를 수출을 통해 달성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7대 권역 별로 나눠 70여 개 해외 법인과 지사로 구성된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생산에서부터 영업, 물류까지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STX그룹은 기존 사업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해외 자원 개발, 오프쇼어(Offshore), 해외 플랜트 건설과 같은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TX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

I World Best STX **+01 해운무역**

- 해상운송/S&P
- 항만운영/복합물류
- 해양레저산업
- 무역



I World Best STX **+02 플랜트 · 건설**

- 해양플랜트
- 산업플랜트
- 건설
- E & C



stx
World Best

I World Best STX **+03 조선기계**

- 조선
- 엔진
- 조선기자재



I World Best STX **+04 에너지**

- 자원개발
- 발전산업
- 신재생에너지
- Oil & Gas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STX그룹의 주요 8개 계열사들



stx Corporation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TX는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와 투자, 관리를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주도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하며 STX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신규투자/석탄석유/자원개발/철강기계/선박 및 엔진영업/선박관리/S&P 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tx PanOcean

국내 최대 규모인 500여 척의 선대를 운용하고 있는 STX Pan Ocean은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벌크선 사업을 비롯해 LAN선, 탱커,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사업 등 다양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선대 확충,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 VLCC 사업의 역량 확대는 물론, 항만운영 및 복합물류, 해양레저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며, 세계적인 종합해운물류회사로 도약하고 있다.



stx 조선

STX조선은 국내 진해와 부산 조선소에서 LNG선, 초대형유조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련 조선소에서는 벌크선, 자동차운반선을 중심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등 전 세계 10개국 22개 야드에서 크루즈선, 쇄빙선 등을 포함하여 연간 200여 척에 이르는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크루즈 건조사 아커야즈(Aker yards)사에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며, 세계 메이저 조선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다.



stx 엔진

STX엔진은 연간 800만 마력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선박용, 산업용의 다양한 저속, 중속, 고속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을 생산하는 종합엔진 전문 메이커이다. 선박 및 산업용 발전설비는 물론, 해양구조물용 발전기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디젤엔진 메이커인 독일 만-디젤 사, MTU, 커민스와 기술제휴를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디젤엔진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STX엔진은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STX그룹은 시대를 앞서는 변화와 혁신으로, 각 계열회사의 내실 있는 성장과 투명 경영, 윤리경영 그리고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를 주름잡는 STX는 세계가 기억하는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다.



stx중공업

STX중공업은 대형 저속 디젤엔진을 연간 400만 마력 생산하고 있으며, 철강재 가공, 테크 하우스 생산 등 조선기자재 사업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발전설비,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플랜트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프쇼어(Offshore)와 같은 다양한 해양플랜트를 생산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stx엔파코

세계적인 디젤엔진 핵심부품 및 첨단 전문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STX엔파코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터보 차저, 크랭크 샤프트, 실린더 라이너 등 디젤엔진 핵심부품과 카고 오일 펌프 등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생산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stx에너지

STX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열병합 발전소인 구미 발전소와 반월 발전소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내 업체의 40% 이상인 260여 개 업체에 증기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및 유럽 등에서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사업과 해외 발전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자원의 개발에서부터 수송, 가공, 판매 이르는 종합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있다.



stx건설

STX건설은 그동안의 축적된 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항만설비 및 조선소, 플랜트, 해양배후도시 건설에 이르는 종합 건설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토목, 건축 분야에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건설 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며, 2007년 아파트 브랜드 "STX KAN"을 선보였다. 또한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 특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현재 조성 중인 중국 대련 조선해양 종합생산기지 건설을 비롯한 해외 건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의와 도전
Dream & Future
World Best

세계 정상을 꿈꾼다면 세계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꿈을 찾아서 세계로-

STX그룹 신입사원 크루즈선 해외 연수

STX그룹의 신입사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룹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
STX의 인재들은 세계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해운·무역, 조선기계, 플랜트·건설, 에너지분야의 월드베스트 그룹 STX.
지구촌 곳곳 66개 네트워크에서 세계 정상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stx

stx Corporation

stx Pan Ocean

stx 조선

stx 엔진

stx 중공업

stx 엔파코

stx 에너지

stx 건설